



■ 농수산부 축산국 기구개편

- 축정 · 대가축 · 중소가축 ·

초지사료 · 가축위생과로 -

-양계는 중소가축과 관리계에서-

농수산부는 축산국 기구개편을 단행, 6월 9일(월)부터 새로 개편된 기구에 의해 업무에 들어갔다.

새로 개편된 축산국 기구는 축정계(축정계, 기획계, 유통계) 대가축과(수급계, 경영계, 낙농계) 중소가축과(수급계, 관리계) 초지사료과(수급계, 관리계, 초지계) 가축위생과(위생계, 방역계, 수의계, 지도계)로 되어있다.

중소가축과에서는 수급계에서 돼지등 포유류를, 관리계에서 닭 등 가금류를 각각 다루게 될 예정이다.

축정계(과장 신순우)는 축정계(계장 신정균), 기획계(계장 유홍열), 유통계(계장 김남철) 등으로 대가축과(과장 김동근)는 수급계(계장 최상태), 경영계(계장 조병대), 낙농계(계장 이창구)로 개편되었다.

중소가축과(과장 이인형)는 수급계(계장 이수현) 관리계(계장 박중근)로 초지사료과(과장 천종인)는 수급계(계장 김남열), 관리계(계장 김 현), 초지계(계장 구능완)로 가축위생과(과장 진찬수)는 위생계(계장 배상호), 방역계(계장 김영부), 수의계(계장 이갑일), 지도계(계장 이홍길)로 구분된다.

각 과의 변경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축산국장실 (503) 7280, (500) 2671

축 산 과 (503) 7281, (500) 2672~3

대 가 축 과 (503) 7282, (500) 2674

중소가축과 (503) 7283, (500) 2675

초지사료과 (503) 7284, (500) 2676

가축위생과 (503) 7285, (500) 2677

■ 상공부 86하반기 및 87년도 상반기 수출입 기별공고

-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 -

상공부는 1986년도 하반기 및 1987년도 상반기 수출입 기별공고를 하였다.

이 공고중 가금류 수입에 있어서, 현행 농수산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었던 닭, 칠면조, 가금고기 통조림을 축협중앙회 추천으로 수입할 수 있게 개정되었고, 가금류의 식용설육은 자유화로 개정하였다.

중계나 185g이상 중계 이외의 닭은 종전과 변동이 없다.

이고시는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규로 수입이 제한되거나 제한규격이 확대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 축협회장 명의식, 수협회장 박희재 정부 내정

정부는 오는 7월 21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은수 수협중앙회장 후임에 朴喜宰 국가안전보장회의비상기획의 상임위원을 이득룡 축협회장 후임에는 明宣 植 농수산부 제1차관보를 각각 내정했다.

■ 농민우대예금 법제화

- 「농가목돈마련저축」시행령 공포 -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5월 13일자로 공포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시행령은 85년 12월 23일자로 공포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 가입대상자의 범위등 모두 19조(條)로 되어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를 2ha초과 소유한 농민과 젓소나 사슴을 20마리, 소·말은 30마리, 돼지, 산양·면양·개는 1백 50마리, 토끼 친칠라·밍크는 5천마리, 가금 1만마리, 벌꿀은 1백 50군 등을 초과 사육하고 있는 농민들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없도록 돼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3년짜리와 5년짜리가 있으며 납입금을 내는 방법은 월납·분기납·반년납의 3가지로 구분돼 있다.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농지로 1ha를 초유 소유한 일반 농민의 경우 연간 1백 44만원, 농지 1ha이하의 저소득 농민과 임차농은 연간 72만원까지로 돼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기본금리 12% 외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계약기간까지 불입한 일반 농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연간 3년짜리가 평균잔액의 4.2%, 5년짜리는 4.9%이며, 저소득 농민에게는 일반 농민보다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연간 3년짜리가 평균잔액의 10.2%, 5년짜리는 13.9%이다.

목돈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저축한 예금에는 납입원금 평균 잔액의 0.9%에 상당하는 장려금이 지급되고 4년이상 저축한 때에는 납입원금 평균잔액의 5.6%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목돈마련저축을 가입한 농민이 상해·폐질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함으로써 월납저축은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월이상, 분기납저축 및 반년납저축은 저축금액을 1년이상 납입하지 못한 때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제 2 회 농축산 박람회 성황리 폐막

- 지난 5월 7일~5월 13일까지 여의도 기계공업 전시관에서 개최 -



지난 7일 농수축산신보(대표: 한남석)주최 제 2회 한국농축산박람회가 축산단체, 고등학교·대학교 유관계열학생, 대규모농장 등 단체관람객을 비롯한 내국인과 외국인 등 연일 관람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루고 지난 13일 폐막했다.

건국대 축산대 농악대의 흥겨운 농악놀이가 펼쳐진 가운데 개막된 제 2회 농축산박람회는 황인성농수산부장관, 김 식 국회농수산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농수산위원, 이근환 농협중앙회장, 이득룡 축협중앙회장, 이은수 수협중앙회장 등 내외 귀빈의 개막테이프 컷팅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축산박람회에는 축산 전분야 86개 업체가 참가 1천 2백 50개 품목을 전시, 그중에서도 각종 축산기자재업체의 전시품이 눈길을 끌었다.

양계기자재업체인 고창양계에서는 디스크형 자동 급이기와 자동환기시설 장치를 출품하였는데, 자동 환기장치는 여름철과 겨울철 온도에 따른 자동환기를 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양축가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일본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대한특수기계는 계란 선별기와 G·P시스템을 전시 하였는데, 현재는 국내시장보다는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선별기의 경우 수출가는 750만원대 이지만 국내 가격은 400만원대라고 했다. 관계자는 양계 농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계단 선별기나 G·P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보급은 미흡하나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앞으로 모든 농가에서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3일에는 파푸아뉴기니국 제임스클레넨 스마카리오내무부장관, 케타바이보로 산림청장이 박람회장에 들러 우리나라 농축산업 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 다수의 외국인들이 관람, 한국농축산업의 해외홍보에도 기여했다.

한편 국내 유일하게 개최되는 박람회의 장소가 협소하고 전시품목의 전문세분화 미흡 등 아직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기는 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많은 업체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해 지방 축산인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시 기간동안에 전시제품 홍보도 기대에 미흡해 행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박람회가 농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 사료협회 긴급이사회

— 강성배, 회장 직무대행기로 —

한국 사료협회는 지난 20일 긴급이사회를 소집,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낸 마영호 전 회장의 후임으로서 진양사료(주)의 강성배 사장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하였다.

신임 강성배 사료협회회장 직무대행은 17대 전회장의 임기 마감인 86년 12월말까지 회장직을 맡게되며, 이날 긴급 이사회에서는 공식으로된 상근부회장을 빠른 시간내에 선출하기로 결정하였다.

■ 도계 검사원 교육 실시

— 지난 5월 19~5월 31일까지 —

대한 수의사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도계 검사원 교육이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교육대상은 현재 각 업체에서 도계 검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이 분야에 종사할 사람

으로 이번 교육에는 27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강의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맡았다.

'86. 여름 농민대학 개설

— 오는 7월 16일 부터 6개과 480명 대상 —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총재 류철영)는 농촌지도자와 독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증산과 소득증대에 대한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새로운 농업기술과 영농정보를 제시하기 위하여 매년 여름과 겨울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바 86년 여름농민대학을 개강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농민들의 배움의 광장인 농민대학에 각관내의 선도농민이 참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생을 추천 입교시켜 주시기 바란다.

1. '86 여름농민대학 개강일시 및 개강과목

반 별	과 별	연수기간	일 정	수강인원
전기반	채소원예·수경재배과	86. 7. 16(수)	4박5일	80
	과수원예과	~7. 20(일)		80
	양돈·중소가축과			80
				80
후기반	화훼 관상수과	86. 7. 20(일)	4박5일	80
	한우·낙농과	~7. 24(목)		80
	식량·벼섯·특수영농과			80
	6 개 과			480

2. 개설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모진동 93-1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3. 수강료

4박 5일간의 숙박비, 교재대(4×6배판 600페이지 정가 10,000원), 강사료, 선진지 견학비 등 일체 포함하여 1인1과 45,000원

4. 수강신청요령

백지에 수강자의 주소·성명·수강희망과명을 기재하여 1만원의 신청금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87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사무국으로 보내면 된다.

■ 제35차 가축질병 예찰 협의회 개최

- 돼지콜레라 및 닭뉴캐슬병 발생주의보
발령후의 발생상황논의 -

제35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위원장: 가축위생 연구소장 설동섭박사)가 지난 5월 30일(금)오후 2시 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각도 가축위생시험소장과 진흥청관계관, 대한수의사회, 동물약품협회 연구소 각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질병발생 동향을 검토하고 돼지콜레라 및 닭뉴캐슬병 발생주의보 발령후의 발생상황과 가축 전염병 예방약 소비상황 및 기타 현안문제에 대해서 중점 논의가 되었다.

■ 미국대두협회(대표 이경원)사무실 이전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난 5월 17일 사무실을 이전 하였다.

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빌딩 8층(시청뒤)
전화번호 변경없음: 732-2601(교 4386)
778-9114
(K. P. O. Box 170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문회의개최

- 87년도 연구사업계획 수립 위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6일 동연구원 회의실에서 연구자문회의를 갖고 1987년도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을 받았다.

이날 자문회의는 전영진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성배영 부원장이 1987년도 연구사업계획안을 설명한 다음 각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어 연구책임자들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닭·소·돼지 등 축산물수출 추천제도 13품목 7월부터 폐지

농수산부는 농수산물의 수출확대로 새로운 소득원의 확대와 국내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94개 품목중 닭·소·돼지·사과·배·양파등 42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추천제도를 폐지,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3월 5일 발표된 농어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품목별로 수출절차 간소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과잉생산시 수출수요를 확대하여 가격안정으로 생산농민의 이익을 보장키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에 수출추천제도가 폐지된 품목은 사과·배·잡곡류 등 농산품 24개 품목과 최근 사육두수가 크게 늘어난 닭·소·돼지 및 육류 등 축산물13개 품목, 수산물로는 송어·꽂치 등 활선어와 냉동어류 등 5개 품목 등이다.

■ 한국가축번식학회 춘계학술 세미나

지난 5월 24일 오전 9시부터 대전실업 전문대학에서 한국가축번식학회 주최 춘계학술세미나 및 임시총회가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앞으로의 축산업은 과거와 달리 사육규모 즉 가축의 양적증가의 방향에서 생산능력의 향상과 효율화를 위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며 가축개량을 성공한 양축가만이 건실한 축산인으로 남을 수 있음을 강조, 이에 대한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날 발표된 논문은 축산시험장 김희섭박사의 牛 수정란이식기술과 실용상의 문제점, 전남대 농대 나진수박사의 미세조작에 의한 수정란의 분할 및 유전물질의 수정 관내 주입, KAIST 이경광박사의 포유동물 수정란의 성감별과 가축개량을 위한 동결정액의 도입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발표 및 질의가 있었다.

■ 어분제조 사상 최고인 19,091톤 생산

- 어류 원료로 환산할 경우 20만톤을 처리한셈 -

한국단미사료협회(회장 양효진) 집계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중 어분 생산은 19,091톤으로 어분 제조사상 초유의 최고 생산량으로 이를 어류 원료로 환산하면 약 20만톤에 해당된다. 또한 판매량도

15,011톤이나 되어 최고의 판매기록이 된다.

이제까지의 최고 생산량인 85년 5월에 15,068톤보다 무려 4,000톤을 앞서고 있다.

이러한 증산의 주원인은 정어리 어획 사정이 좋았기 때문이다.

■ 농수축산신보 신사옥기공

-방배동에 지하2층 지상7층 현대식 건물-

농수축산신보(대표 엄익재)사옥신축기공식이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방배동 264의 2호 현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기공한 농수축산신보 신사옥은 대지 3백 20평에 지하2층(4백 85.5평), 지상7층(9백 33.5평)등 연건평 1천 4백 19.7평의 철근콘크리트 현대식 건물로 세워진다.

농수축산신보 사옥은 완공후 지하 1·2층에 운전실·주차장·발전실·식당 그리고 지상 1층에 농수산물 상설전시판매장·농수축협 금융전포를 유치하고 2~7층은 농수축산신보 업무용 사무실외에 농수축산관련기관 및 업체들을 입주시켜 농수축산업 발전의 유기적인 건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용도계획을 세우고 있다.

양계협 제 86-6-1호

공 고

본회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 검정규정에 의거 1986년도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을 다음 요령에 의하여 시행함을 공고함.

1986년 6월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회장

다 음

1. 시험일시 : 1986년 7월 26일 오전 9시
2. 시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234
대한양계협회(축산회관 지하회의실)
3. 응시자격
가. 갑종시험 응시자격은 시험에 이상이 없는 신체 건강한자.
나. 고등시험 응시자격은 본회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 검정규정에 의함. 갑종 시험 합격한자.
4.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본회 소정양식) 1부
나. 사진 1매(증명용)
5. 응시서류 접수기간
1986년 6월 20일부터 86년 6월 25일(수)오후 6시까지
6. 수험료 및 시료대 : 응시원서 제출시 본회에서 결정한 수험료 및 시료대(초생추대)를 납부하여야 함(추후 86년 6월 16일까지 결정발표예정)
7. 합격자 발표 : 시험후 5일 이내에 발표하고 소정의 합격증을 교부함.
8. 기타사항
① 응시원서는 본회 사무국에서 무료 배부함
② 시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본회사무국에 문의할 것(전화 752-3571~2)